

큰빛은혜교회 가정예배지

2026. 2. 11.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은혜”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 1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 2절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 3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 4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코러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 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에베소서 2장 8절

다 같이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흔히 “은혜받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히브리어 ‘헨(Chen)’은 높은 분이 낮은 자를 향해 ‘몸을 굽히다’라는 뜻이며, 헬라어 ‘카리스(Charis)’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을 하면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우리를 향해 몸을 굽혀 찾아오신 사건, 그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과 개인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자격 없는 나를 먼저 부르신 은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세상은 자격을 따집니다. 열심히 해서 나의 실력을 갖추게 되면 나를 뽑아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룬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야 직장이든 사회든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위의 로마서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는 계산법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도덕성, 그리고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했던 자가 겸손해지고, 조급했던 자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자격 없지만 택하여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고난의 한복판에서 나를 붙드시는 은혜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인생의 거울을 지날 때 우리는 “은혜가 다 떨어졌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깊이 몸을 굽히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고백처럼, 육체의 가시와 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보십시오. 미국에 사는 이민자로서, 내 힘으로 도저히 넘을 수 없던 산을 어떻게 넘었습니까?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 능력으로 버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당할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뒤를 돌아보며 발견하는 인생의 발자취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인생은 앞만 보고 갈 때는 '고생'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은혜'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파란 만장했던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딱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때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때 그 거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굽이굽이 흰 길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예비하셨음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발걸음이 결국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은혜'가 깊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벤에셀의 고백이 오늘 가정과 개인의 고백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남 다 같이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격 없던 나를 먼저 찾아오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번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2. 돌아보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온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중 보 기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 다 같이

1.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2. 말씀 준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가 있도록
3.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도록
4. 많은 사역 속에서도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5. 목사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마 무 리 기 도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지금까지 붙드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족하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지나온 모든 길이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 도 문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